

-사도행전 1장

등장인물

데오빌로, 요한, 예수, 갈릴리 사람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매,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동생들, 신도들 120명, 요셉, 맛디아

배경지명

예루살렘, 이스라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올리브산



(neilwiththedeal at English Wikipedia)

올리브산

올리브 산 또는 감람산(橄欖山)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으며 해발 815m이다. 고대부터 감람나무가 무성하였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장소로 나와있다.

묵상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1장 8절)

사도행전 1장은 승천하시기 직전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시작한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후로 40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함께 하시며 이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시고 이 일에 증인이 되라고 부르신다. 제자들이 초대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시간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완벽하게 오해했다. 예수는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온 그들의 리더이기를 바랐다. 기원전 164년 마카비가 중심이 되어 이스라엘 주권을 되찾기 위해 혁명을 일으켜 성공한 역사를 다시 한 번 재현해 줄것 같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였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보다 훨씬 중요한 이슈였고 관심사였다. 모든 압제와 무거운 세금에의 압박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곧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했고 그러기에 예수는 그들의 비전이었고 꿈이었다.

사도행전 1장 6절, 부활하셨다가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께 제자들은 다시 그 꿈을 품는다.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 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들의 스승, 이스라엘을 혁명으로 되찾을 수 있겠다는 꿈이 철저하게 무너진 후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도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혁명가들로 모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갈 복음 전파자로 부르신 것이다.

이 부르심은 성령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고, 할 수 없다. 성령의 힘으로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 사도행전은 이 분명한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 후에도, 그 후에도, 그 후에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들이 사도행전 그 후의 역사를 이어간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분명한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사도행전 2장

등장인물

유대 사람, 갈릴리 사람, 바대 사람, 메대 사람, 엘람 사람,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 크레타 사람, 아라비아 사람, 베드로, 열한 사도, 예루살렘 주민, 예언자 요엘, 남종들, 여종들, **나사렛 예수**, 조상 다윗, 믿는 사람

배경지명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루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근처 리비아, **예루살렘**



예루살렘, Jerusalem

예루살렘은 예로부터 종교 분쟁에서 불씨가 되어온 중동에 있는 도시다.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중심부의 지중해 연안 평야와 요르단 강에서 이어지는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3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인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이다. (출처: Wikipedia)

묵상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행 2:46-47)

예배한다는 건 단순히 교회라는 건물에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는 것이고 온 백성에게 칭송 받으실 주께 기뻐하는 것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예배한다는 개념은 일요일과 교회 건물에 갇혀있을 개념이 아니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3장

등장인물

베드로, 요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나은 사람), 위 사람을 메고온 사람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빌라도, 사무엘

배경지명



솔로몬의 행각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주랑을 행각이라고 부른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주변 나그네 쉼터인데 여기에서 랍비들이 오전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 오후에 행각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랍비들이나 순례자들이 모여 토론하는 장소이다.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여러 행각이 있었다. 이 행각들은 율법을 공부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솔로몬의 행각이라 한 것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백성들을 가르친 것을 의미하고 공부하는 곳이라는 측면에서 칭한 이름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학당 같은 것이다. (출처:

다음 블로그 'daum jhoon29')

묵상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행 3:6)

베드로가 나면서 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한 말이 너무나 인상깊었다. 더군다나 이 기적을 듣고 놀란사람들에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절대 나의 능력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 또한 인상깊었다. 은과 금이라는 부라는 것과, 기적을 듣고 놀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명예를 챙길 수 있었음에도 그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긴 것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인상깊었으며 나 또한 저렇게 부와 명예를 챙기기 보다 나에게 예수님이 유일하게 소중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사도행전 4장

등장인물

사도, 백성,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예수, 말씀을 들은 사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 베드로, 이스라엘 백성,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요한, 하나님, 우리 조상 다윗, 헤롯, 본디오 빌라도, 바나바(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



베드로, Peter

벧세다인 요나의 아들. 안드레의 형제인데 본명은 시몬이다. 수리아어로 게바라고 예수님이 개칭하셨다.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이다. 즉 반석이라는 뜻이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과 생업을 버리고 주를 따라 12제자중 수위를 차지했고 야고보와 요한으로 더불어 친근하였으며 그의 행적과 공로가 지대하다.

(출처: 한국컴퓨터선교회)

배경지명



예루살렘, Jerusalem

예루살렘은 사해의 북쪽으로 약 28km 떨어져 유대아 산맥의 언저리의 해발 780m에 위치하며, 지형적으로 동쪽으로는 키드론 골짜기와 남쪽으로는 힌놈 골짜기의 가운데 솟은 구릉에 기원전 약 3000년 이래로 사람들이 부락을 이루어 사는 것으로 추측된다. 산악 지형이 가진 장점을 살려 예루살렘은 외부 침입을 쉽게 막을 수 있는 성채를 중심으로 서서히 도시의 윤곽이 잡혔다.

(출처: Wikipedia)

묵상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행 4:10)

사도행전 4장은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이 다가오는 것으로 시작한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하게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때에 비상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담대함과 능력을 주신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에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앓은병이가 건강하게 되어 그들의 앞에 섰다고 말했다. 그렇게 그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죄가 없으셨음을 증거했고,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싶다.

사도행전 5장

등장인물

아나니아, 삽비라(아나니아의 아내), 사도들, 베드로, 젊은 사람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 믿는 사람, 백성, 남녀의 큰 무리, 병든 사람, 수많은 사람들,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대제사장, 사두개인의 당파,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부하들(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 가마리엘(바리새인)

배경지명



예루살렘, Jerusalem

예루살렘은 사해의 북쪽으로 약 28km 떨어져 유대아 산맥의 언저리의 해발 780m에 위치하며, 지형적으로 동쪽으로는 키드론 골짜기와 남쪽으로는 힌놈 골짜기의 가운데 솟은 구릉에 기원전 약 3000년 이래로 사람들이 부락을 이루어 사는 것으로 추측된다. 산악 지형이 가진 장점을 살려 예루살렘은 외부 침입을 쉽게 막을 수 있는 성채를 중심으로 서서히 도시의 윤곽이 잡혔다.

(출처: Wikipedia)

묵상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사람을 속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4절)

영적인 눈이 가려질 때, 항상 주님을 보지 못하고 눈 앞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에만 연연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죄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의 삶 자체를 바꾸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에든지, 하늘 나라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베드로 또한 성령의 힘이 충만했기에, 아나니아의 잘못이 누구한테 한 잘못인지 확실히 말해주었다.

세상에서 살아갈수록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성경이어야 한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작은 것부터 바꾸어나가는 것이다. 지금 나의 삶에 주께 하듯이 해야하는 삶의 영역은 무엇이 있나?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골 3:23)

사도행전 6장

등장인물

제자들, 유대 사람, 열두 사도, 하나님, 형제자매, 성령과 지혜가 총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총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방사람, 니콜라, 제사장들,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 백성, 장로, 율법학자들, 거짓 증인, 나사렛 예수, 모세

배경지명

그리스, 안디옥, 예루살렘, **리버디노 회당**

*공회(공식적으로 모이는 일), 회당(장소적 의미)

*천주교는 순교자가 생길 때 회당을 세웠다.



회당의 역할과 중요성

- ①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여 유대 공동체가 율법에 친숙하도록 한다. 이런 의미에서 회당은 토라를 읽고 가르치며 듣고 배우는 토라의장이다.
- ② 회당은 디아스포라의 경우 성전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성전 멸망 후에는 성전을 대신하는 기능을 맡았다. 이러한 사실은 본래 성전에 있었던 일곱 촛대(Menora)가 회당에 세워졌고, 성전 예배의 여러 제의적 관행이 회당 예배의 관행과 동일하다는 데서도 드러난다.
- ③ 회당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도처이다. 요세푸스(Ap 1:209)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저녁 때 까지”기도했다고 한다.
- ④ 회당은 동시에 교육 기관이다. 율법에 관한지식및 성경 읽기를 중개함으로써 일종의 초등학교(rpsh tyb)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미쉬나 연구소(vrdmh tyb)의 역할도하였다.
- ⑤ 지역 모임을 위한회합 장소의 역할을 한다.
- ⑥ 타지 유대인들을 위한숙소의 기능도수행하였다.

출처: <https://koinedata.tistory.com/934> [코이네자료실]

묵상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총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행 6:3-4)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것 같다.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건 더할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건 굉장한 무게가 실리는 삶이다. 성령과 지혜를 채워주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성령과 지혜를 받은 자는 겸손하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한다는 ‘책임’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된다.

사도행전 7장

등장인물

스데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열두족장, 요셉, 바로, 하물자손, 모세, 바로의 딸,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 사람,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사울

배경지명

하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이집트, 가나안, 세겜, 미디안, 시내산 광야, 바빌론,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

로마제국은 많은 점령지를 쉽고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점령지의 상황에 맞게 그곳에 지방자치정부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로마의 정책에 편승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이다. 유대인들의 산헤드린은 BC 3세기경에 시작되었고 유대인들의 최고기관이었다. 이 산헤드린은 총 71명으로 구성되었다. 산헤드린의 기능은 종교적, 도덕적 또는 정치적 일까지 하였는데, 종교기능으로는 유대인 전체를 관리했고(행9:2), 정치적으로는 사법권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

(출처:감리교 교육마당)

묵상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행 7:59~60)

놀랄 수 밖에 없는 장이었다. 스데반이 공의회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평생 믿고 살아왔던 것들을 포기해야만 믿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그런데 그걸 스데반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회라는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선포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용기다. 그리고 한치의 믿음의 흔들림이 없었기에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스데반이 마지막에 ‘나를 치는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말하며 잠들었다고 적혀있다. 난 이 잠들었다는 표현도 너무 마음에 와닿았다. ‘눈을 감았다, 죽었다’ 라는 표현은 그냥 삶의 끝으로 들리는데, ‘잠들었다’ 는 표현은 뭔가 비극적인 느낌이라기보다 희망적이고, 다 이루고 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되게 가슴을 울리는 표현이다.

사도행전 8장

등장인물

사울, 사도, 경건한 사람들, 스테반, 빌립, 더러운 귀신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시몬**, 베드로, 요한, 주의 사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이사야

배경지명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사마리아 성, 가사, **광야**, 가이사랴



광야, 영어로는 Wilderness 혹은 desert라고 부른다. 번역을 하자면, 거친 곳 혹은 버려진 곳이라는 뜻이다. 히브리어로는 광야를 무엇이라 부를까?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이다. 이 단어는 ‘~로부터’라는 뜻의 ‘미’와 ‘말하다’라는 뜻의 ‘다바르’란 동사가 합쳐진 단어이다. 해석하자면 “그곳에서 말씀하시다”란 뜻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의 책들 중 한국어로 민수기에 속하는 책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한다. ‘그곳에서 말씀하시다’란 뜻을 가진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광야는 얼핏 보기에는 고난과 고통의 장소이지만, 사실은 그와 정 반대의 장소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장소이며 만나는 장소이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의 백성과 만나시고 이야기하셨다. 그곳에서 말씀하셨다. 바로 ‘미드바르’인 것이다.

(출처: 생활목사이야기)

묵상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행 8:13)

사도행전 8장에는 두명의 시몬이 나온다. 마술사 시몬과 시몬 베드로이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본래부터 차이가 있었을까? 마술사 시몬은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녔다. 빌립이 권세가 있었고, 그의 모습에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빌립과 함께 다니면 자신도 힘과 권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모습은 흡사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와 같다.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분의 권능 때문이었다.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른 이유와 마찬가지로였다. 8장을 통해 주님은 완전한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도구로 만드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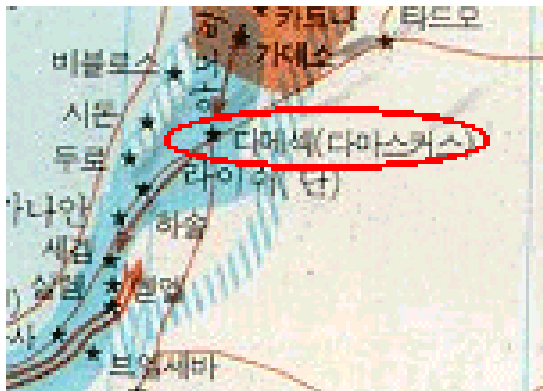
사도행전 9장

등장인물

사울, 대제사장, 아나니아, 유다, 유대인, 바나바, 애니아, 베드로, 다비다(도르가)

배경지명

다메섹, 예루살렘, 직가, 다소, 가이사랴, 갈릴리, 사마리아, 룻다, 사론, 옴바



다메섹, Damascus

현재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이며 다메섹은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싸인 2,200피트 높이의 평지에 있다. 다마스쿠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40km나 떨어져 있었지만, 오래 전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어온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 (출처 : 한국컴퓨터선교회)

묵상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행 9:34)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보여주신다고 생각한다. 내가 나를 믿으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결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될 때 나의 상황은 흔들릴지 몰라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다. 내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왔다.”(마 8:13)

사도행전 1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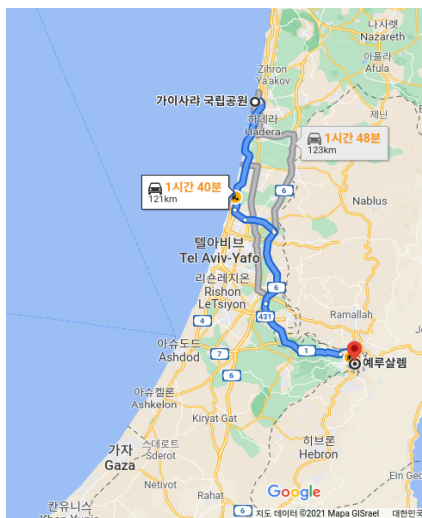
등장인물

고넬료(로마 군대의 백부장), 유대 백성, 천사, 하나님, 베드로(시몬), 하인 두 사람, 부하, 경건한 병사 하나, 나사렛 예수,

*시몬 : 작은 돌(조약돌) → 베드로 : 반석

배경지명

가이사랴, 옴바



가이사랴, Caesarea

이스라엘에는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두 곳 있습니다. ‘헬몬산 아래 빌립보를 붙여 부르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이곳의 위치는 언급되는 곳보다 북쪽에 위치해있다) 10절에서 언급되는 고넬료의 집이 위치한 가이사랴는 지중해 해변에 자리잡은 곳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90km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구글 지도)

묵상

그 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세 번 있는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행 10:13-17)

성령의 일하심과 영역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의 의미가 궁금해 고민하게 됩니다. 단지 내가 판단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라는 말씀이신 건지, 음식을 먹듯 온 몸의 소화기관을 통해 시간을 들이듯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도행전 11장

등장인물

시몬 베드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 요한, 주 예수 그리스도, 스테반, 유대 사람들, 바나바, 사울, 아가보, 글라우디오 황제

배경지명

예루살렘, 음바 성, 가이사랴,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 구레네, 다소

키프로스

1974년 남북 분단



키프로스, Cyprus

지중해에 위치한 키프로스 섬은 1974년 이후로 2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졌는데, 북쪽의 36%를 차지하는 북부 키프로스 터키 공화국과 남쪽의 64%를 차지하는 키프로스 공화국이다. (출처 : 한국컴퓨터선교회)

(사진 출처 : new1 뉴스)

묵상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셨다” 하고 말하였다.(행 11:18)

11장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판단은 절대 믿을 것이 못된다’ 는 것이다. 우리가 믿을것은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을 먹으라고 하심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발점이 된다.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히 구별하며 하나님께 선택 받은자와 선택 받지 못한자 곧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로 구별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가치없게 만드는 행위였다. 값 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며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데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특권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안타깝다고 느낄 것이다.

사실 내가 저 상황에 있었다면 이방인들에게 전하자는 말을 반대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은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구원을 특권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사도행전 12장

등장인물

헤롯 왕, **야고보**, 유대인들, 베드로, 두 군인, 주의 사자, 마리아(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로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



야고보, James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사도 요한과 형제 관계이다. 그는 갈릴리 벳새다 출신이었으며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이 여행할 때 종종 그분에게 시중을 들던 여인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예수님께 나아와 자기의 두 아들이 그분의 왕국에서 각각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들은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죽일 것을 바랐다. 이런 급한 성격 때문에 그들은 천둥의 아들이란 이름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주님의 승천 이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여 사도들 가운데 처음으로 순교자가 되었다. 야고보라는 이름의 유래는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다. 또 다른 사도인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동명이인이라 혼동을 피하기 위해 흔히 ‘대(大)야고보’라고 부른다.

(참고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성경사전/성경인물/성경바로알기’)

배경지명

유대, **가이사랴**, 예루살렘



가이사랴, Caesarea

이곳은 보통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로 불렸지만 한때는 ‘스트라토의 탑’이라는 이름의 조그만 마을이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이 이곳을 재건하고 여러 개의 웅장한 건물을 지어,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였다. 여기에는 주로 그리스 사람들이 살았고 황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5년에 한 번씩 경기 대회가 열렸다. 이곳은 헤롯 대왕과 헤롯 아그립바 1세의 통치 때에 유대의 수도였으며 유대가 로마의 통치를

받았으므로 로마 권력의 핵심부였다. 여기에서는 그리스, 로마, 유대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자주 일어나서 한 번은 20,000명이 죽은 적도 있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성경사전/성경인물/성경바로알기’)

묵상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행 12:23)

애덤 사람인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교회에 속한 자들을 탄압했다. 헤롯이 붙잡아 온 사람 중에는 요한과 같이 초대교회를 대표하던 야고보가 있었다. 그래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이다. 유대인들은 헤롯이 교회를 탄압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고, 헤롯 또한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때문에 그는 더욱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자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왔다.

시기가 무교절만큼, 아마도 헤롯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무교절에 베드로를 공개처형 함으로 인해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은 벌써 세번째이다. 한 번은 풀려 났지만, 다른 한 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과 같이 풀려난 적이 있다. 헤롯도 이 사실을 전해 들어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4절을 보면 알 수 있듯 총 16명의 군사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베드로를 감시하도록 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하루 24시간을 6시간마다 번갈아 가면서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감시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행 12:5)

베드로가 처형되기 전날 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이미 교회의 리더 격인 야고보가 처형 당해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처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을 것 같다. 그리고 교회의 핵심 지도자인 베드로가 죽는다는 것은 곧 교회의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위기 앞에서 더욱 단결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베드로가 죽으면 그 다음으로는 성도들이 잡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핍박 앞에서도 흠어지지 않았고, 도리어 한 마음으로 단결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다. 교회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들은 기도해야 한다.

사도행전 13장

등장인물

바울, 예언자들, 교사들, 바나바, 니게르(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마나엔, 요한, 바예수, 총독 서기오 바울, 엘루마, 사무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 다윗, 아브라함, 빌라도, 모세

배경지명

안디옥 교회,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 버가, 예루살렘, 안디옥, 애굽, 가나안, 갈릴리



안디옥, Antioch

지금은 터키의 안타키야라는 이름의 보잘 것 없는 도시에 불과하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의 속주 중의 하나인 시리아의 수도로서,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가는 대도시였다. '동양의 여왕'이란 명칭을 가질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였다. 스테반 집사의 순교이후 예루살렘교회의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면서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 정착하여 안디옥 교회를 형성하였다. (출처 : 한국컴퓨터 선교회)

묵상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나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행 13:13)

바울의 위대한 선교여행에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나바, 아나니아, 요한 등이 있었는데 이번 구절에서는 요한이 떠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동행, 동역의 힘에 대해 묵상해보게 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중에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동체를 통해 하늘나라라는 같은 목적지를 두고, 함께 달려줄 사람이 있다는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 공동체를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다.

사도행전 14장

등장인물

바울, 바나바, 유대사람, 그리스 사람, 사도, 관원, 발 못쓰는 지체장애인, 군중, 제자들



바나바

A.D.30-68년경 주로 활동. 오순절 사건 이후 로마 전역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간 교회사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활동을 했다.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을 직접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자 사도 바울과의 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힘썼다.

12사도 외에 사도로 불렸던 사람이며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으로 드릴 정도로 헌신적인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어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그의 전도 열정을 보여준다.

배경지명

이고니온, 회당, (지방)루가오니아, (도시)루스드라, 더베, 안디옥,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앓달리아, 교회

루스드라, Lystra

루스드라는 ‘양의 무리’라는 뜻으로 현재 지명은 하툰사라이(Hatunsaray)라 불리는 옛 터가 남아 있는 시골 마을이다. 터키 중앙 이고니온 북동쪽 32km 지점, 아나톨리아의 소금 호수 남서쪽의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고대 유적지. 이 지역 주변의 평원에는 두 개의 시내가 흘러 매우 비옥하다. 고대인들은 이 지역에 정착하여 농경생활을 하며 살았다.

(출처 : 성서지리, 한국성지미디어 원장 이원희 목사)



묵상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행 14:22)

돌로 쳐죽임을 당할 뻔한 바울이 놀라울 따름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겪는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내가 겪는 환난은 무엇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환난인지 돌아보게 된 것 같다. 사실은 아직까지 엄청난 환난을 겪어보지 못해 상상이 다인 것 같기도 하다.

사도행전 15장

등장인물

모세, 바울, 바나바, 베드로, 야고보, 다윗, 바사바 유다, 실라

배경지명

페니키아, 예루살렘, 베니게, 사마리아, 안디옥(이야기의 중심지), 수리아, 길리기아



안디옥, Antioch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다. B.C 300년경에 수리아 왕 셀고스니가돌이 건설하고 국도로 정하였는데 당시는 세계 제일의 화려한 도시였다.

(출처 : 한국컴퓨터선교회)

(사진 출처 : 네이버 블로그 'J앤 G 말씀참고')

묵상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행 15:5)

이걸 보았을때에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새로운 신도가 된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 옛것이 남아있다는 소리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원래 내가 믿던 하나님' 이니까 구원이라는 선물에 이방인들 만큼 감사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결국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각과 소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하며,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자랑으로 여기면 안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바울또한 한곳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하는것이 정말 인상깊었다. 참된 전도자가 바울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그들이 신앙으로 하나님앞에 홀로 설 수 있게 도와주며 그 자리를 떠나더라도 편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참 전도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도행전 16장

등장인물

바울, 디모데, 디모데의 어머니와 아버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 예수의 영, 마게도냐 사람,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여종의 주인들, 실라, 관리들, 상관들, 무리, 간수



디모데, Timothy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되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한 목회자이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경건한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으므로 헬라적인 영향을 받아 다신사상에 빠져들수도 있었으나, 디모데는 그 이름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겼다. 신실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하는 디모데는 모범적인 젊은이가 되어 갔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봉사하는 청년 디모데가 그의 고향 루스드라에서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한몸에 받게 된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처럼 평온한 가운데 기독교 교육을 받던 디모데의 인생은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의 계기를 맞는다. (출처: 한국컴퓨터선교회)

배경지명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브루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드로아, 마게도냐, 사모드라게, 네압볼리, 빌립보, 두아디라



마케도니아, Macedonia

그리스 반도 북쪽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보뢰아 등이 위치해 있는 전체지역을 말한다. 바울이 네압볼리, 빌립보,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뢰아 등의 교회를 설립한 지역이다. (출처: 한국컴퓨터선교회)

묵상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행 16:7)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무시아를 거쳐 드로아에 갔을 때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방의 한 사람이 서서 요청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 이를 통해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드로아에서 합류한 누가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확신하고, 배를 타고 유럽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의 계획과 다를 때가 많다. 나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할 때 선한 길을 보여 주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항상 나의 계획과 뜻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게 됨을 믿어야 한다.

사도행전 16장을 묵상하며 떠오른 말씀은 이사야 55장 8-9절이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사 55:8-9)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바울 일행의 생각과 계획보다 높음을 믿고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들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을 하나님을 상상하며 묵상했다.

또한 디모데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고비 고비마다 택하신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수넴 여인을, 회심한 사울을 위해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예비하시고, 루디아와의 만남을 통해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게도냐로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다!

사도행전 17장

등장인물

바울, 예수, 실라, 야손, 가이사, 실라, 디모데, 디오누시오, 다마리

배경지명

데살로니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베뢰아, 아텐, 아레오바고



데살로니가, Thessalonika

기원전 315년 마케도니아의 왕 카산드로스가 건설한 이 도시는 그의 부인이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누이의 이름을 따서 테살로니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기원전 168년 마케도니아 왕국이 로마 공화정에 의해 멸망하자, 테살로니키는 로마 속주였던 마케도니아 속주의 수도가 되었고 그때부터 1913년까지 2천년 이상 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 등의 지배를 받았다. 테살로니키는 로마에 정복된 후, 로마 제국과 비잔티움

제국의 중요한 상업중심지로 발달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 도시의 교회에 보낸 두통의 편지는 기독교 신약성서에 포함(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되었다. (출처: Wikipedia)

묵상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행 17:16)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분노가 기억난다. “...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요 2:16) ‘내 마음의 성전에는 어떤 더러운 것들이 있나?’라는 질문으로 오늘 하루 내 삶을 돌아본다.

사도행전 18장

등장인물

바울, 아볼로



(사진 출처 : 15세기 작자 미상. 왼쪽부터 에바브로디도와 소스데네, 아볼로, 게파, 가이사.)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 구약에 정통한 인물이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과 함께 천막 지으면 함께 산 인물)에게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웠다. 바울의 복음 전파가 전해지고 전해져서 결국에는 함께 협력하여 복음전파에 힘쓰는 동역자가 되었다.

배경지명

아테네, 고린도, 시리아, 겐그레아, **에베소**, 가이사랴, 예루살렘, 안디옥, 갈라디아 지방, 부르기아 지방

묵상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 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행 18:26-28)

선교와 복음 전파의 대상이었던 인물들이 이제는 함께 복음을 살아내며 동역자로 역할한다는 것이 놀라움과 동시에 감동이 되었다. 나아가 복음으로 이어진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내게 복음을 전해준 가정, 학교, 더 자세히 부모님과 선생님들, 여러 강사님들. 함께 신앙으로 하나되어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가 꿈꾸고 나아가야 할 관계의 본모습을 잘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사도행전 19장

등장인물

아볼로, 바울, 요한,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 디모데, 에라스도, 데메드리오, 가이오, 아리스다고, 알렉산더

배경지명

고린도, 에베소, 에베소 회당, 두란노 서원,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로마, 아시아



에베소, Ephesus (뜻: 인내)

소아시아의 수도.

게스터 강구에서 5마일 상류에 있는 산유지다. 현재의 이즈미르에서 80KM 위치한 도시. 로마국의 행정상, 교통상의 중심지이며 아시아 7교회 중의 하나가 있었던 곳이다.

(출처: 한국컴퓨터선교회)

묵상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행 19:32)

19장을 보면서 “너무 생생하다!” 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굉장히 재미있는 장이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한순간의 판단으로 자신의 탐욕에 먹혀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알거나 둘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에 미루어 보았을때에 데메드리오는 물질적 부유라는 탐욕에 먹혀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선동하여 바울을 없애려고 하였다. 선동은 매우 강력하였는데, 32절에 자신들이 왜 여기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말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과 같다고 느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동하는자가 되지 말아야하며, 선동 당하는자도 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행동들이 잘못되었다고 느낀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책을 모두 태운 것 처럼 나도 날 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내가 하는 행동들이 틀리다면 바로 돌이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도행전 20장

등장인물

바울, 제자들, 유대인들, 소바더(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데살로니가 사람), 가이오(더베 사람), 디모데, 두기고와 드로비모(아시아 사람), 유두고, **교회 장로들**

배경지명

마게도냐, 헬라, 수리아, 아시아, 드로아, 빌립보, 앓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에베소, 예루살렘



미둘레네, Mitylene (뜻: 조개가 많은)

소아시아의 본토 서쪽 17km 지점의 에게해의 큰 섬 레스보스의 동안에 있던 주요성읍이다. 바울은 제 3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항구에서 정박했다. 이곳은 일찍부터 에올리아 식민이 행해진 곳 중 하나이며, 시인 알카이오스, 삽포를 낳은 곳이기도 하다. 미둘레네는 본래 작은 섬이었는데, 레스보스 섬에 접합하여 두 양항을 가진 성읍으로 되었다.

미둘레네에는 32km에 달하는 천연의 방어시설, 도리아식 아테미 신전, 약 만 명 좌석이 있는 고대 극장, 수도원, 폐허가 된 교회당, 목욕탕,

정교의 순교자들의 수도원들이 있다. (참고 사이트: 율타리 교회)

묵상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행 20:22)

위의 구절을 읽어보았을 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비록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바로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릴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 22절에서 바울은 말한다. “나는 성령에 매여” 여기서 매인다는 것은 일정 부분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던 것은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끄셨다는 것이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 20:23)

바울은 19절에서 사역에 대해 자신의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강조하듯이 말했는데, 23절은 이를 더 강화시켜 성령 하나님은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무리 그가 성령에 의해 매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성정, 곧 사람의 타고난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분명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행 20:24)

하지만 24절에서의 바울에게 흔들림이란 보이지 않는다.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이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신 분, 그에게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이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의 고백 또한 바울이 우리보다 존재론적으로 무엇인가 더 뛰어났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성령 하나님께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던 것 또한 지극히 성령 하나님께 매여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게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은혜와 ‘성령에 매임’이 절실히 필요하다.

말씀을 읽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 뜻대로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기도를 통해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얻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사도행전 21장

등장인물

바울, 빌립, 아가보라는 예언자, 나손, 야고보, 모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천부장

배경지명

가이사랴, 고스, 로도, 바다라, 페니키아, 키프로스 섬, 두로, 시리아, 예루살렘, 도레마이, 유대, 아시아, 길리기아
다소



가이사랴, Caesarea

팔레스타인의 해안 도시로 갈멜산에서 남쪽으로 약 37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백부장 고넬료와 집사 빌립의 거주지이기도 하다. 가이사랴는 주전 4세기에 시돈의 통치자였던 스트라토가 처음 설립한 도시이다. 이후 헤롯대왕은 이곳에 인공적인 항구도시를 건설하고 로마황제를 위하여 '가이사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렀다. 가이사랴는 약 12년간의 공사 끝에 주전 13년경에 완성되었다. (출처 : 한국컴퓨터선교회)

묵상

“그 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행 21:13)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는 와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바울에게 인간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요 15:11)라는 말씀처럼 주의 기쁨이 곧 바울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서 세상의 어려움을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삼는 삶을 살았다. 그렇기에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나의 기쁨이 온전히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라는 질문으로 또 한번 오늘의 나를 돌아본다.

사도행전 22장

등장인물

바울

배경지명

예루살렘, 길리기아



길리기아, Cilicia

소아시아 동남 지중해 동북안에 있는 도시. 길리기아의 수도는 다소이며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다. 이 도시는 스테반과 변론하고 쫓겨난 적이 있었으나 바울의 회심 후 여러교회를 설립하는 등 변화가 일어났다. (출처 : 한국컴퓨터선교회)

묵상

그때에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행 22:14-15)

이 구절을 묵상하며 지난 트리미에서의 3년과 앞으로를 살아갈 것을 그려보았다. 받은 사랑과 배워 살아낼 복음을 요즘 고민에 대한 대답과 같았다. 복음 Festival을 준비하고 있다. 이곳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가 발 닿는 어디에서도 펼쳐질 수 있도록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받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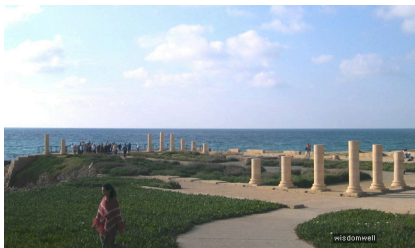
사도행전 23장

등장인물

바울, 대제사장 아나니아,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 천부장, 유대 사람, **클라우디오 루시아**, 벨릭스

배경지명

안디바드리, 가이사랴, 길리기야, 헤롯 궁, **예루살렘**



헤롯 궁

현재는 건물은 남아있지 않고 터만 남아있다고 함.

하지만 실제로 헤롯이 머물렀다고 추정되는 곳은 ‘헤로디움’ 이라고 불리는 궁이라고 함. (다음 블로그 : wisdomwell)

묵상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오.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행 23:3)

11장에서 묵상했던 스테반과 너무 겹쳐보였다. 바울이 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벽이라고 말하는데, ‘회칠한 벽’이라는 표현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결국 겉모습에만 신경쓴 제사장들을 지적하고 지혜를 발휘하여 바리새파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돌린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한다.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 고난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벨릭스에게까지 가는 길까지 안전하게 지키셨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계속 지켜보셨으며 너가 아직 해야할 일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나도 바울의 입장에서 몰입해 참 감사하다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 담대히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사도행전 24장

등장인물

바울, 아나니아, 더둘로, 벨릭스, 유대인들, 루시아, 드루실라, 보르기오 베스도



(출처: 코이네자료실)

벨릭스, Felix

펠릭스는 '행복한, 행운'를 의미하며,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에만 9회 나온다. 그는 A.D. 52년에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 유대의 행정 장관 또는 총독으로 임명되어 60년까지 유대의 총독으로써 유대지방을 다스린 인물이다. 그는 노예출신으로 자유민의 신분을 얻어 유대의 총독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가 이런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와의 친분으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그의 형 팔라스Pallas의 지원 덕분이었다고 한다.

배경지명

예루살렘, 아시아

묵상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행 24:14)

24장에서는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집념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100km) 올라왔다. 벨릭스를 한껏 추켜세운 더둘로는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존재이며,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극단적 언사를 쓰면서,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소했다.

총독은 바울에게도 변론할 기회를 주었는데, 이때 바울은 자신이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도를 따라**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구약성경을 다 믿는다고 밝힌다. 자신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으며, 그것이 곧 부활의 소망인데, 이것이 바로 자기가 유대인들의 심문을 당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내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구절은 14절이었다. 바울은 적대적인 세상 앞에서 훗날을 기약하며 우회하거나 피하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다 시인하고, 또 그를 고발하는 자들과 같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고 하나님께 향한 그 소망을 고백하는,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견고함...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는 믿음,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을 본받고 싶다.

벨릭스를 주목해야할 이유

벨릭스는 부인 드루실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에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바울을 자기에게 보낸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결정하겠다고 함으로써, 일단 판결을 연기하고 감금 상태인 바울에게는 상당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었다. 며칠 후, 벨릭스는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차분하게 복음을 전했다.

벨릭스가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독직에서 물러나기까지,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2년이란 세월을 보냈다.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함을 확신하였던 것 같다. 이미 바울이 정치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사실과 종교적인 문제인 것 또한 알고 있었다. 그는 바울을 무죄로 풀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벨릭스는 자신의 정치적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바울을 감금했고, 우호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바울에게 뇌물을 얻고자 하는 계획을 가졌다. 바울은 아무런 죄도 없이 벨릭스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하여 계속해서 죄인으로 남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벨릭스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중에서도 참 비극적인 인물인 것으로 느껴진다. 바울을 2년이나 개인 교사처럼 곁에 두고 복음을 들었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었던 완고한 사람인 것도 아니었다.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바울에게서 돈을 좀 받을까 하는 어리석은 바램과 함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한다는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정직해질 수 없었던 것이다. 비록 복음 앞에서 두려운 마음도 가졌었지만, 결국 자기 인생에 주어진 그 놀라운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총독 벨릭스... 어떤 사람이 바울을 2년동안이나 곁에 두고 복음을 배우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

사도행전 25장

등장인물

베스도, 바울, 아그립바 왕, 버니게, 벨릭스

배경지명

가이사라, 예루살렘

묵상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행 25:9))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25절) 베스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쓰기 바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도 베스도와 같은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다. 이름하여 ‘Sunday Christian’이다. 사실 정말 삶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세상의 권력앞에 무너지기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하지만 바울의 모습을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도, 유대인들 앞에서도 똑같이 담대하게 나아갔다. 이것은 바울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온삶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나에게는 “나의 삶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내 삶에 끊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26장

등장인물

바울, 아그립바(임금), 베스도(총독)



사진출처 : Published by Guillaume Rouille (1518?-1589) - "Promptuarii Iconum Insigniorum"

아그립바, Agrippa

‘독자’라는 뜻의 아그립바는 성경에서 두 인물이 나온다. 헤롯 아그립바 1세(B.C. 10-A.D.44)은 사도행전 12장1절에서는 그저 헤롯 왕으로 나와있다. 청년 시절에 로마에 가서 교육을 받았고 디베라 시장을 맡았다가 갈리굴라로부터 숙부 빌립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임명되었다. 25-6절에서 언급되는 아그립바는 헤롯 아그립바 2세(A.D. 30-100)이다.

배경지명

가이사랴

묵상

그러자 아그립바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행 26:28-29)

나의 단순한 말 한마디로 껴임에 넘어오라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메시지가 와닿았다. 말을 잘하겠다는 것도 논리정연한 이야기로 상대를 설득시키겠다는 것도 아닌 나의 기쁨이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나의 복음이 당신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복음은 나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복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함께 누리하고자 하는 모습은 복음을 전하고 살아낼 나에게 도전을 줬고 중심을 잡아주었다고 생각한다.

사도행전 27장

등장인물

바울, 백부장 율리오, 아리스다고

배경지명

아시아, 데살로니가, 시돈, 키프로스 섬, 루기아에 있는 무라, 니도, **크레타 섬**, 살모네, 라새아 성, ‘아름다운 항구’, 뵤닉스, 가우다



크레타 섬, Crete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자, 지중해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이다. 고대 그리스부터 오늘날까지 역사, 신화, 음악, 방언 등 다방면에 있어 고유한 문화적 전통이 이 섬에 전해 내려왔다. (출처 : Wikipedia)

(사진 출처 : 네이버 블로그 ‘범무사 정승열’)

묵상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행 27:10)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행 27:31)

바울의 말의 권위가 있을 수 있었던 것에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분명 바울은 출항하면 우리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기에 이런 목숨을 거는 상황이 일어났다.

그리고 정말로 바울이 말한대로 되었기에 아무런 희망없이 떠내려가며 배의 짐들을 버릴때에 바울이 희망을 전할 수 있었고, 도망치려고 한 사람들에게 지금 가면 죽을 것이라고 말했을때에 말의 권위가 있을 수 있었으며, 배의 실제적인 통치권을 가진사람이 바울이 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공동체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것 같다. 결국 실제로 말의 권위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사람들은 틀리다고 욕할지 몰라도 결국 그 진실을 마주할 것이라는 점!

사도행전 28장

등장인물

원주민들, 바울, 보블리오, 보블리오의 부친, 유대인, 로마인, 가이사

배경지명

알렉산드리아,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로마

묵상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행 28:15)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지내고 다시 배가 출항하여, 바울은 결국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맞이 위해서 압비오 광장까지 영접을 나왔다. 바울은 이들을 만나 하나님께 감사했고 큰 격려를 얻었다. 그 가운데에는 바울의 로마 여정에 함께 한 누가와 아리스다고 등이 있었다. 주 안의 형제들을 만난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할 수 없는 격려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로마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얼굴로는 바울을 알지 못했지만, 바울이 써 보낸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렇게 그를 극진히 영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 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행 28:23)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곳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 자신이 반유대교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도 없었고, 또 바울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 흥미를 보였기에, 바울은 자신이 지내는 집에 그들을 초청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데 많은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 그 결과, 늘 그렇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로 나뉘어졌고, 바울은 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경륜을 선포했다.

이렇게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두 해 동안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다. 그는 2년 동안 감금되었다가 일시적으로 석방되었고, 후에 다시 투옥되어 네로 치하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진다. 분명한 것은 그의 이 마지막 시간들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인 것 같다. 그는 로마에서 투옥 중에도 옥중서신을 썼고, 잠시 석방된 후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썼으며 나중에 재 투옥되어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썼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초기의 복음 확장의 역사를 보여주셨다. 이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리라 믿는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복음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인물인 것 같다. 회심의 시간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그가 수고한 복음의 역사는 모든 세대를 거쳐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 성령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연장된 역사를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쓰시기를 원하실 것이다. 마지막 때까지 신실한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 증인이 될 교회가 바로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 이기를 소망한다.